

환경 & 힐링, 재활용 향초만들기

미트웨어 2016 - 임호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유리용기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내용물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1번만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유리라는 재질 특성상, 깨지지만 않으면 여러번 쓸 수 있습니다.

유리용기들을 재활용해야하는 이유는 정말 환경을 보호하기 가장 쉬운 일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양해서 재활용이 쉽지않은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재대로만 재활용 된다면, 100%에 가까운 재활용도 가능한 원료입니다.



출처 : 환경부

빈병 유형에 따른 환불액 (2016년 기준)



유리를 재활용하기에 가장 쉬운 것은 빈병이 있습니다. 소주, 맥주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빈병은 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병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되돌려받죠. 이로 인해 제조사는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빈병보증금의 금액이 미미하니, 판매점에서는 받으려 하지도 않고, 소비자도 반환하기 귀찮아져 반환하지 않는 빈병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소주병, 맥주병 말고는 대부분 빈병 보증금을 주며 수거해가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경우도 소주병, 맥주병 말고도 빈병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빈병을 수거하는 도·소매업자가 받는 취급수수료(맥주병 19원, 소주병 16원)가 너무 적어 대부분은 빈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최근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등에 사는 20대 소비자들의 95%가 빈용기 반환보증금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From 한국경제신문)

환불가능한 유형

재사용 병 (환불 가능)



병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경우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재활용 병 (환불 불가능)



유리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경우
(드링크 병, 소형 주스 등)

출처: 환경부

그래도 빈병 보증금에 적용되는 유리병들은 다행입니다. 2017년부터는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하여 몸값이 2.5배정도 오르기로 했거든요. 또한 관계 인프라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건, 그나마 그런 보증금 제도라도 받을 수 있는 병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유리용기, 유리병들의 재활용율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리는 깨져도 재활용이 가능한데, 현실 제도에서는 깨진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의 재활용 과정



유리병 분리배출
95%



세척 후 재사용
1병당 50원
비용 발생

문제점

- 소매점에서 반환보증금 안돌려줘
- 빈병 수거업무 방치
- 유리병 파쇄율 10%



용해 후 재제조
1병당 160원
비용 발생

문제점

- 내열유리로 인해 재활용 비용 증가
- 내열유리 폐용기 분리수거 안돼
- 재활용 불량률 8.5%

유리자원이 재활용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를 지닌 병을 수거해 씻어서 재활용하는 방법,
파쇄후 녹여서 다시 만들어 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자의 방법이지만, 후자의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지켜야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색깔별로 병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활용으로
만들어 낼 유리색을 원하는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내열유리는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열유리가
용해로에 들어갈 경우, 용해로에서 재대로 녹지않아 재활용
불량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재활용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를 재활용하여 간단하게 활용율을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아이템이 바로
‘재활용 용기를 이용한 향초만들기’
였습니다.





용기는 다양합니다. 저는 이런 병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무난한 용기는 잼 용기입니다. 스파게티같은 소스용기도 괜찮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둡니다.

뚜껑이 있는 병이 더 좋습니다. 불을 끌때 연기를 만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뚜껑이 쇠로 된 제품만 가능합니다.

준비물



소이왁스 (인터넷에서 1kg당 8,000~10,000원 정도)

아로마향(100ml기준 10,000~15,000원)

심지 (면심지 300~400원정도, 나무심지 600~1,000원정도)

온도계 (3,000원 정도)

중탕용 비커 (2kg기준 12,000원 정도)



우선 중탕용 비커에 소이왁스 1kg을 넣고 왁스가 다 녹을 때까지 가열해줍니다.

왁스가 녹을 때까지 보통 2~30분정도가 걸립니다. 중탕으로 끓이다보니, 물이 졸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왁스가 녹는 사이, 틀을 준비합니다.

잘 말려서 준비한 틀에 심지를
바닥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는 양면테이프를 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고정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녹고나면 온도가 좀
높습니다. 온도가
50~55도까지 내려갈때까지
기다립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준비된 향을
넣습니다.

이때 온도가 좀 중요한데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향을
섞게되면 향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온도를
맞춰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틀에
부어줍니다.

심지가 바로 설 수 있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굳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대로 굳는데까지는 보통 3시간이 걸리며, 이동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1시간반정도 걸리는듯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들 병의 재활용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제공해주신 미트쉐어 프로그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